

# 중국 연변 조선족의 한국전통 일상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

박 영 선  
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Daily Korean Traditional Food of China-Korean in Yanbian Area

Park, Young Sun  
Department of Nutrition,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ual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to compare the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ies of daily traditional Korean food among the identified perceptual patterns in the Yuabian area. Data were collected from 261 Korean housewives in Yanbian and underwent cluster and group mea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wo different patterns : tradition-oriented vs. modern-oriented.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perceptual patterns are likely to vary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background as well as the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ies of daily traditional f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se perceptual patterns, the preference and the intake frequencies of traditional daily food are discussed, and future implications for food nutritionists and Asia marketers are presented

Key words : Housewives of Yanbian Koreans, daily traditional food of Korea, tradition-oriented pattern, modern-oriented pattern, preference for daily traditional Korean food, intake frequency of daily traditional Korean food

## 1. 서 론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를 분류하면 절후(節候)에 따라 특별히 차려서 계절과 음식을 조화시키고 풍류를 즐기는 절식(節食), 시식(時食)이 있으며, 한 사람이 출생하여 생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겪는 몇 고비의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출산과 혼례, 상례와 제례 등의 통과의례 음식과 건국 이래 대대로 이어 내려온 궁중음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우

리는 전통음식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조선족들은 중국이라는 특수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의식하며 그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활하므로 횡적인 개념에서 우리의 전통 음식을 그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음식이라고 일컫고 있다(Shim Hae Sook 1994).

이와 같은 전통 식생활문화의 가치는 첫째, 생명유지, 종족보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오랜 생활역정의 체험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이므로 현대 과학이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으며 셋째, 각 민족만이 갖는 개성이 있어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대량화에서 초래되기 쉬운 문화의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넷째, 각 민족들로 하여금 동질성·소속감·심리적 충족감을 갖게 하므로 문화유산으로 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aegu University in 2002.  
Corresponding author: Park, Young Sun, Daegu University, Korea  
Tel : (053) 850-6831  
Fax : (053) 850-6839  
E-mail : yspark1@daegu.ac.kr

중할 뿐 아니라 미래의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중국 연변거주 조선족은 지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므로 다른 민족의 문화와 접촉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은 그대로 전승되고 있으며 또한 타민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하루 세끼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둘째, 상차림의 풍습이 독특하며(반상, 손님상, 돌상, 잔칫상, 회갑상, 명절상, 연회상, 제사상 등) 셋째, 아름답고 고상한 식사예절을 가지며 넷째, 배불리 양껏 먹는 전통적 풍습이 있으며 다섯째, 취사 작업은 전적으로 여성이 담당하여 남자는 바깥일을 맡아하고 부엌에 드나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기며 여섯째, 민속적인 음식금기풍습을 갖는 등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의 특성을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ark Kyung Whee 1994, Yanbian Korean Popular Customs Institution 1991, Lee Kwang Gyu 1994).

그런데 문화와 습속(習俗)은 모두 변화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조선족의 식생활은 전통적인 음식문화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한족 음식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한족도 마찬가지로 부동한 민족문화의 접촉은 상호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이중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은 이러한 이중적 음식문화생활 속에서도 대다수는 전통적 음식문화생활을 위주로 하고 있다.

연변은 지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방식 및 문화적 유산은 한민족(韓民族)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라는 특수지역이며 또한 정치·사회 및 사상적으로 북한에 더 밀착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로 개방화·서구화된 우리 사회와는 달리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이 외래문화의 영향을 덜 받은 채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Yoo Chung Gaul과 Shim Hae Sook 1993, Kwang Jum Wha 1992). 식생활 문화의 전통성은 거주지역의 이동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의 변화와 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 버리거나 퇴적층으로 숨어 버린 것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해외 교포들의 식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식문화의 경우도 조선민족의 선명하고도 풍부한 특색

을 바탕으로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식문화 속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북부 지역의 각 민족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한민족의 전통계승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민족성으로 보아 전통식생활풍습과 관습이 잘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Park Young Sun과 Chung Young Sook 2005).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을 규명하고 인식유형에 따라 한국전통 일상음식의 선호도와 섭취빈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생활풍습인 그들의 전통 식문화 양상의 실상을 알아보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민족공동체적 심성(心性)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 식품마케팅 차원에서 식품산업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부이며, 2000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연변대학교 조선학부(朝文學部)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할당하여 주부 300여명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부실 기재되거나 설문 문항의 응답이 일관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26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명절음식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설문 문항들은 모두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2. 분석방법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의 분석에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적용되었다. 군집분석은 전체 주부들의 인식요인이 유사한 집단들로 묶는 방법이다. 만약 자료에 요인의 특성이 상이한 두 종류의 유형이 있다면 두 개의 군집이 나타난다. 여기서 각 주부의 인식요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유사한 위치를 가진 주부끼리 묶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주부의 인식점수를 기초로 하여 수행되었다. 인식점수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데는 유클리드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이 사용되었고, 동질적인 주부를 묶는 방법으

로는 워드법(Ward's method)이 적용되었으며, 군집수를 결정하는 데는 묶임 계수(fusion coefficient)와 덴드로그램(dendrogram)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인식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집단 간의 한국전통 일상음식의 선호도와 섭취빈도의 차이는 t-test를 적용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소득계층은 52.5%가 중산층이고, 고소득층의 비율은 13.9%이며,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은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89.6%로 대부분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방화가 된지 오래지 않고 실제로 그들과 대화를 해 보면 체제(體制)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고도 하였으며 앞으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교 범주 중에서는 타종교보다 기독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은 기술직(22.0%), 교사 및 공무원(19.5%) 농업(19.5%)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업주부의 비율은 14.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8%로 분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과(문)대학 졸업으로 25.5%이며, 중학교 졸업도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92.2%가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7.7%가 배우자 또는 친정가족이 포함된 확대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부의 고향은 연변, 연길시, 길림성 등의 중국이 78.4%로 이들의 다수는 이민 2세대들이며, 21.6%의 주부는 태어난 곳이 남한과 북한인데 남한보다 북한이 고향인 경우가 더 많았다. 주부 연령은 20대가 12.8%로 비율이 가장 낮았고 40대가 32.4%로 가장 높았다. 연령이 30대와 60대 이상인 주부의 비율은 각각 20.4%와 20.8%로 비슷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가족수는 3명인 가구가 4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명으로 29.5%이며, 5명 이상인 가구가 6.3%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결혼경과 연수는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경우가 17.7%인데 비해 25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가 33.5%로 상대적 비율이 더 높았다.

#### 2.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

한국 전통음식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군집분석은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인식패턴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덴드로그램은 X축은 군집의 수를, Y축은 퓨전계수(fusion coefficient)를 나타내는 모형이며, 층별 간 기울기를 기준으로 군집수를 파악하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usewives in the sample

Variable	Categories	(n=261)	
		N	%
Income class	High income class	34	13.9
	Middle income class	128	52.5
	Low income class	82	33.6
Religion	Buddhism	6	2.1
	Christian	15	6.3
	Confucian	6	2.1
	No religion	234	89.6
Occupation	Teacher & government workers	51	19.5
	Clerical workers	38	14.5
	Technical workers	57	22.0
	Self-employed	27	10.5
	Farm workers	51	19.5
	Housewives	37	14.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	2.7
	Junior high school	46	17.8
	High school	104	39.8
	College (2 years)	67	25.5
	More than college	37	14.3
Family type	Nuclear family	241	92.2
	Extended w. husband's family	16	6.3
	Extended w. wife's family	7	1.6
Hometown	China	204	78.4
	North Korea	18	6.7
	South Korea	39	14.9
Age	lowest~29 years	32	12.8
	30~39 years	51	20.4
	40~39 years	81	32.4
	50~39 years	34	13.6
	60 and higher	52	20.8
Family size	2 persons	70	29.5
	3 persons	113	47.7
	4 persons	39	16.5
	5 and more persons	15	6.3
Years of marriage	less than 5 years	38	17.7
	5~10 years	21	9.8
	11~15 years	30	14.0
	16~20 years	54	25.1
	20 and more	72	33.5

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euclidean 거리 측도를 이용하여 덴드로그램으로 파악된 군집수를 지정해 준 뒤 속도군집(quick cluster) 분석을 실행하여 인식패턴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자료에서 2종류의 군집이 실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2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261명의 주부들 중 34.5%가 군집 1과 같은 인식유형을 보였고 나머지 65.5%는 군집 2와 같은 유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군집 1에 속하는 주부의 항목별 분포가 군집 2에 속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항목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군집 1의 경우 한국전통음식의 종류와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상차림,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음식의 좋은 점에 대한 인식수준은 각각 4점 이상으로 군집 2에 비해 월등히 더 높았다. 반면 한국전통음식의 계승 및 발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집단간 차이 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두 집단 모두 4점을 넘는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상대적 점수는 군집 1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한국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및 취향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군집 2가 5점으로 군집 1의 4보다 월등히 높아 집단간 차이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군집 1에 속한 주부들이 군집 2의 주부보다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군집별 특성을 고려할 때 군집 1은 전통성 지향유형을 그리고 군집 2는 현대화 지향유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3.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과 식생활 문화와의 관계

#### 1) 인식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식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소득계층은 두 집단 모두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상대적 분포는 현대화 지향유형이 71.6%로 전통성 지향유형의 50.1%보다 더 높았다. 종교 역시 두 집단 모두 무교의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 비율은 전통성 지향유형은 0인데 비해 현대화 지향유형은 9.3%로 집단 간 차이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가족유형은 두 집단이 유사한 분포를 이루고 있고, 고향은 두 집단 모두 중국이라고 응답한 분포가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남북한 간의 상대적 분포는 전통성 지향유형은 북한이, 현대화 지향유형은 남한이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직업은 전통성 지향유형은 농업과 교사 및 공무원의 비율이 높았고, 현대화 지향유형은 기술직과 사무직, 교사 및 공무원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력은 전통성 지향유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소 더 많은데 비해 현대화 지향유형은 고등학교와 전과(분)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주부연령의 경우 전통성 지향유형이 현대화 지향유형보다 50대(20.4% vs. 17.5%)와 60대(16.8% vs. 2.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평균 가족수는 두 집단 모두 3명인 분포가 가장 많았다. 결혼경과 연수는 11~15년 사이가 현대화 지향유형이 16.5%로 전통성 지향유형의 9.7%보다 비율이 더 높았고, 21년 이상인 경우는 전통성 지향유형이 58.3%로 현대화 지향유형의 43.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을 배운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변 조선족 조부들에게 있어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듣고 배우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친정어머니이며, 그 다음이 시댁어머니와 할머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책을 통해 인식하거나 배운 경우도 두 집단 모두 10%를 넘으며, 그 외 매스컴을 통하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듣고 배운 주부도 5%가 넘는 것

Table 2. Results of cluster analysis : Perceptual patterns

Items	Group	
	1	2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4	4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	3
Assessment of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4	3
Perception of develop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	4
Perception of the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5	4
Need for modernizing Korean traditional food	4	5
Frequency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4	3
Number of cases	90	171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each group

Variable	Group	
	Tradition oriented (n=90)	Modern oriented (n=171)
Income class :		
High income class	22.3	10.2
Middle income class	50.1	71.6
Low income class	27.6	18.2
Religion :		
Buddhism	3.8	1.3
Christian	0	9.3
Confucian	1.3	2.6
No religion	95.0	86.8
Family types :		
Nuclear family	92.7	91.4
Extended w. husband's family	6.1	6.7
Extended w. wife's family	1.2	1.8
Hometown :		
China	80.4	77.1
North Korea	8.0	12.7
South Korea	11.6	10.2
Occupation :		
Teacher & government worker	20.4	18.6
Clerical workers	10.7	18.6
Technical workers	16.5	27.8
Self-employed	12.6	8.2
Farm workers	26.2	12.4
Housewives	13.6	14.4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3.5	2.5
Junior high school	30.2	11.0
High school	32.6	42.9
College (2 years)	15.1	31.3
More than college	18.6	12.3
Age :		
Lowest ~29 years	1.0	2.1
30~39 years	3.9	13.4
40~49 years	58.0	64.9
50~59 years	20.4	17.5
60 and higher	16.8	2.1
Family size :		
2 persons	10.6	9.3
3 persons	42.7	39.2
4 persons	28.2	26.8
5 and more	18.5	24.8
Years of marriage :		
Less than 5 years	4.9	5.2
5~10 years	1.9	6.2
11~15 years	9.7	16.5
16~20 years	25.2	28.6
21 and more	58.3	43.6

Table 4. Personal Impact on Learning Traditional Food

Category	Group	
	Tradition oriented (n=90)	Modern oriented (n=171)
From husband's mother & grandmother	27.3	18.5
From wife's mother	57.1	57.3
From school	1.3	3.1
From broadcasting	3.9	3.8
From books	10.4	17.2

으로 나타났다.

## 2) 인식유형별 한국전통 일상음식 선호도와 섭취빈도

인식유형별 한국전통 일상음식 선호도와 섭취빈도를 t-test로 분석한 결과가 Table 5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기호도와 섭취빈도는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호도는 1점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를 3점은 '보통', 그리고 5점은 '매우 좋아 한다'를 나타낸다. 섭취빈도는 1점이 '전혀 먹지 않는다'를, 3점은 '보통', 그리고 5점은 '매우 자주 먹는다'를 나타낸다.

### (1) 인식유형별 한국전통 일상음식 선호도

연변 조선족 주부들의 인식유형별 한국전통 일상음식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전통성 지향유형 집단이 현대화 지향유형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5). 전통성 지향유형과 현대성 지향유형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음식은 쌀, 팔, 녹두, 콩, 잣, 호두 흑임 등으로 만든 죽 종류를 비롯하여 맑은 국, 된장국, 곰국, 전골, 찜, 적, 부각, 떡, 한과, 음청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면, 칼국수, 냉면, 비빔국수, 메밀국수, 수제비 등을 포함한 면, 만두, 떡국 종류와 냉국, 조림, 구이, 생채 및 숙채, 편육 등에 대한 선호도는 집단 간 차이 없이 두 집단 모두 4점을 상회하는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김치(배추, 깍두기, 나박, 동치미, 오이소박이, 열무),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아찌(오이, 무, 마늘, 파, 깻잎, 콩잎, 고추 등) 등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전통 일상음식들 중에서도 집단 간 차이 없이 특히 선호도가 높은 음식들이다.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점은 어떤 측면에서 이들 조선족 주부들 중 연령이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한국에서 사는 주부들보다 오히려 한국전통음식에 대

한 본질적 특성과 전통성을 더 잘 보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인식유형별 한국전통 일상음식 섭취빈도

섭취빈도 역시 전반적으로 현대성 지향유형 집단이 전통성 지향유형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죽과 면류, 전골(쇠고기, 버섯, 낙지, 송이, 두부, 해물 등), 조림(장조림, 고추, 감자, 명태, 고등어, 연근), 구이(더덕, 송이, 고기, 생선 등), 전유어(생선, 완자, 굴, 고추, 연근, 버섯, 부추 등), 생채(무, 더덕, 오이, 도라지, 달래 미나리, 상추) 및 숙채(콩나물, 숙주, 무, 시금치, 버섯, 잡채, 탕평채), 편육(양지머리, 쇠머리, 돼지머리, 족편, 순대 등), 떡(시루떡, 송편, 증편, 인절미, 수수경단, 백설기 등), 장아찌(오이, 무, 마늘, 파, 깻잎, 콩잎, 고추) 등은 전통성 지향유형과 현대성 지향유형 집단 간에 섭취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음식들이므로 파악되었다. 반면, 김치와 된장국을 비롯하여 냉국, 곰국, 찌개, 찜, 선, 적, 부각 등은 두 집단 간 차이 없이 섭취빈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섭취빈도에 차이가 없는 음식들 중 배추, 깍두기, 나박김치, 동치미, 오이소박이, 열무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김치에 대한 섭취빈도는 두 집단(4.69 vs. 4.46) 모두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 간장 등과 같은 장류의 섭취빈도도 비교적 높았다.

인식유형별 한국전통 일상음식의 섭취빈도는 선호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전통 일상음식들에 대한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높는데 비해 실질적인 섭취빈도는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전통성 지향집단과 현대화 지향 집단 간에 나타나는 한국전통 일상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차이가 컸으나 섭취빈도는 기호

Table 5.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Food

Items	Tradition oriented	Modern oriented	t-value
밥(쌀, 보리, 팥, 콩, 조, 현미 등)	4.08	4.12	0.36
죽(쌀, 팥, 녹두, 콩, 잣, 호두 흑임 등)	3.96	3.61	2.87**
면, 만두, 떡국	4.01	3.99	0.20
맑은국(송이, 감자, 토란, 복어, 추어탕 등)	3.99	3.76	2.22*
된장국	4.12	3.78	3.25***
냉국(오이, 미역, 가지, 콩나물 등)	4.18	4.09	0.83
곰국(곰탕,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등)	4.16	3.80	3.18***
찌개(된장, 김치, 명태, 조기, 복어 등)	4.17	4.02	1.56
전골(쇠고기, 버섯, 낙지, 송이, 두부, 해물 등)	4.11	3.80	2.59**
찜(쇠고기, 사태, 닭, 복어, 대합, 도미 등)	4.11	3.90	2.04*
선(오이, 호박, 가지, 두부 등)	4.22	3.89	1.25
조림(장조림, 고추, 감자, 명태, 고등어, 연근)	4.23	4.13	0.89
구이(더덕, 송이, 고기, 생선 등)	4.31	4.38	0.77
전유어(생선, 완자, 굴, 고추, 연근, 버섯, 부추 등)	4.09	3.87	1.86
적(김치, 두릅, 파산, 송이, 화양, 호박 등)	4.00	3.34	3.04***
생채(무, 더덕, 오이, 도라지, 달래 미나리, 상추)	4.20	4.17	0.11
숙채(콩나물, 숙주, 무, 시금치, 버섯, 잡채, 탕평채)	4.12	4.04	0.82
편육(양지머리, 쇠머리, 돼지머리, 족편, 순대 등)	4.04	3.94	0.89
부각(깻잎, 김, 다시마, 고추, 복어 등)	4.12	3.50	3.99***
김치(배추, 깍두기, 나박, 동치미, 오이소박이, 열무)	4.38	4.30	0.86
떡(시루떡, 송편, 증편, 인절미, 수수경단, 백설기 등)	4.04	3.87	2.12*
한과(약과, 다식, 유과, 정과, 대추초, 강정 등)	3.90	3.22	2.42*
음청(식혜, 수정과, 유자, 구기자, 인삼, 오미자 등)	4.30	3.83	4.01***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등)	4.64	4.59	0.60
장아찌(오이, 무, 마늘, 파, 깻잎, 콩잎, 고추 등)	4.05	4.12	0.72
젓갈(멸치, 명란, 장란, 새우, 조개, 꼴뚜기 등)	4.14	3.99	1.31

\*p<0.05    \*\*p<0.01    \*\*\*p<0.001

Table 6. Intake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Item	Tradition oriented	Modern oriented	t-value
밥(쌀, 보리, 팥, 콩, 조, 현미 등)	3.07	2.61	2.31*
죽(쌀, 팥, 녹두, 콩, 잣, 호두 흑임 등)	2.64	2.12	2.81**
면, 만두, 떡국	3.15	2.79	2.03*
맑은국(송이, 감자, 토란, 복어, 추어탕 등)	3.15	3.10	0.33
된장국	3.26	3.24	0.12
냉국(오이, 미역, 가지, 콩나물 등)	3.27	3.24	0.17
곰국(곰탕,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등)	2.94	2.80	0.78
찌개(된장, 김치, 명태, 조기, 복어 등)	3.47	3.16	1.80
전골(쇠고기, 버섯, 낙지, 송이, 두부, 해물 등)	3.16	2.55	2.54**
찜(쇠고기, 사태, 닭, 복어, 대합, 도미 등)	2.91	2.67	1.34
선(오이, 호박, 가지, 두부 등)	3.13	3.56	0.94
조림(장조림, 고추, 감자, 명태, 고등어, 연근)	3.43	3.06	2.14*
구이(더덕, 송이, 고기, 생선 등)	3.53	3.04	2.93**
전유어(생선, 완자, 굴, 고추, 연근, 버섯, 부추 등)	3.01	2.26	3.49****
적(김치, 두릅, 파산, 송이, 화양, 호박 등)	2.60	2.12	1.40
생채(무, 더덕, 오이, 도라지, 달래 미나리, 상추)	3.54	3.18	2.45**
숙채(콩나물, 숙주, 무, 시금치, 버섯, 잡채, 탕평채)	3.35	2.90	2.52**
편육(양지머리, 쇠머리, 돼지머리, 족편, 순대 등)	3.01	2.35	3.25****
부각(깻잎, 김, 다시마, 고추, 복어 등)	2.62	2.28	1.27
김치(배추, 깍두기, 나박, 동치미, 오이소박이, 열무)	4.69	4.46	1.56
떡(시루떡, 송편, 증편, 인절미, 수수경단, 백설기 등)	2.98	2.24	4.16****
한과(약과, 다식, 유과, 정과, 대추초, 강정 등)	2.45	2.17	0.51
음청(식혜, 수정과, 유자, 구기자, 인삼, 오미자 등)	2.99	2.68	1.49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등)	3.87	3.62	1.63
장아찌(오이, 무, 마늘, 파, 깻잎, 콩잎, 고추 등)	3.54	2.59	4.80****
젓갈(멸치, 명란, 창란, 새우, 조개, 꼴뚜기 등)	3.22	2.87	1.80

\*p&lt;0.05    \*\*p&lt;0.01    \*\*\*p&lt;0.001

처럼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문화권에 자치주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연변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관한 인식유형을 알아보고 유형별로 일상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중국 조선족 가정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전통 식생활풍습과 관습이 잘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성 지향집단은 한국전통음식의 종류와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상차림,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음식의 우수성 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국전통음식이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공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다른 민족에게 알리는데 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전통일상음식을 대중화하기 위해 현대인의 식생활과 취향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통 일상음식의 선호도와 섭취빈도는 현대성 지향집단이 전통성 지향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죽, 맑은 국과 된장국, 곰국, 전골, 찜, 적, 부각, 떡, 한과, 음청류 등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호도의 경우 김치류, 장류, 장아찌류 등은 조선족 가정에서 선호도가 특히 높은 식품이다. 한국전통 일상음식의 섭취빈도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김치류와 장류의 섭취빈도는 두 집단 모두 매우 높았다. 기호도와 섭취빈도를 같이 고려할 경우 특징은 조선족들의 한국전통 일상음식들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는데

비해 섭취빈도는 선호도만큼 높지 않았다.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은 중국 조선족들이 선호하는 한국전통 일상음식을 접할 수 있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선족 중 나이가 많은 주부들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특성과 전통성을 더 잘 보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중국의 개혁·개방 및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소득수준 향상, 소비의식의 변화, 핵가족화 및 가정기능의 사회화에 따라 식생활이 서구화하여 전통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의 식생활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식품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우리의 전통식품이 지닌 고유성 및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대중화·과학화하여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킴과 아울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타민족에게도 우리의 고유음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Kwang, Jum Wha : Yanbian Excursion Guide, Yanbian University Press, 1992.
- Lee, Kwang Gyu : China-Korean - Anthropological Approach, Ilchogak, 1994.
- Park, Kyung Whee : Clothing, Food, and Housing Habit of China-Korean, Jepmoondang, 1994.
- Park, Young Sun and Chung, Young Sook, Korean Traditional Food Perception and Cultural Aspect of Korean Mongolian Housew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20 : 35-43, 2005
- Shim, Hae Sook : Community Naming and Population Distribution of China-Kor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4.
- Yanbian Korean Popular Customs Institution : Journal of Korean Popular Customs (Vol. 1), Yanbian University Press 1991.
- Yoo, Chung Gaul and Shim, Hae Sook : Bakdo Mountain and China-Korean, Baksan Publication Company, 1993.

---

(2005년 11월 14일 접수, 2006년 1월 31일 채택)